한국언론학보
2023년 67권 5호 101~137쪽
https://doi.org/10.20879/kjjcs.2023.67.5.003
http://www.comm.or.kr

한국 사회의 낙인찍기와 낙인찍힘에 대한 탐색

국내 온라인 뉴스에 사용된 낙인 단어분석을 중심으로

안순태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이하나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연구교수

Exploring the Stigmatization and Being Stigmatized in Korean Society*

Analysis of Keywords Used in Korean Online News Articles

Soontae An**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Hannah Lee***
(Research Professor, Ewha Institute for Age Integration Research)

The COVID-19 pandemic has made many previously concealed instances of prejudice and stigma visible in the society. Since they are a major contributing factor to societal inequities and inequality, identifying these stigmas is crucial to creating efficient solutions to eliminate them. This study aims to focus on the problem of social stigma during COVID-19 pandemic. Most of the literature on stigma highlights the significant role played by sociocultural, media, and political power in categorizing and discriminating against stigmatized individuals. The term stigma implies that stigmatized objects should be separated, rejected, and excluded.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use of the term stigma in Korean society's discussions of various social issues, with a focus on news media as a source of stigma communication.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term stigma was used in news articles, examining the topic of the articles in which the term stigma was mentioned, the target of stigmatization, who the subjects of the stigmatizing were, and whether the article primarily focused on stigma or mentioned it incidentally. We collected news data through Big Kinds, a big data service that archives all news articles reported in Korea, and analyzed 7,729 news articles from 11 major national newspapers in Korea, reported on the keyword "stigma" from January 1, 2020, to Octobe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2S1A5A2A01047861)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22S1A5A2A01047861)).

** soontae@ewha.ac.kr, first author
*** hannah21@ewha.ac.kr, corresponding author

8, 2022, using a mixed method of text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term stigma was frequently used in news articles related to social and political issues and it was often used incidentally rather than as the main topic of discussion. This observation implies that the media may potentially misapply or excessively employ the term "stigma" rather than directing their efforts towards addressing and challenging the problem of stigmatization within the society. Additionally, the study revealed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ose subjected to stigmatization were targeted, while those engaging in stigmatizing behavior were frequently cited in various public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fessors, government officials, legislators, and lawyers. This discovery demonstrates the prevalence of stigmatization through the use of rigid binary categorization in Korean society, which is characterized by its emphasis on group-oriented culture. The act of downplaying or belittling stigma within news media can yield adverse repercussions for both persons and populations who are already marginalized. Individuals in this population frequently encounter barriers that impede their ability to obtain medical care and achieve a satisfactory standard of living. The act of journalists and media outlets diminishing stigmatized problems serves to perpetuate detrimental preconceptions and exacerbate instances of prejudice and inequity. Therefore, it is crucial for news publications to use the term stigma appropriately because trivializing it only adds more barriers and diminishes the seriousness of the challenges faced by truly stigmatized people. In conclusion, this study holds academic significance as it delves into the problem of stigmatization that manifests across various domains, including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spheres. Additionally, it highlights practical avenues for the media to have a role in mitigating stigmatization.

Keywords: Stigma, Collectivism, Group Categorization, News Media, Trivialization of Stigma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팬데믹 기간 중 드러난 한국 사회의 낙인 문제를 커뮤니케이션학 관점에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낙인을 관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뉴스 미디어를 주목하고, “낙인”이라는 단어가 기사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낙인”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기사의 주제, 기사의 초점, 낙인찍힘의 대상과 낙인찍기의 주체 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주변화되는 대상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전국 11개 종합일간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텍스트 분석과 내용분석을 혼합하여 자료를 분석했다. 총 7,729건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주요 언론에서 낙인 단어는 사회와 정치 분야의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었으며, 낙인 문제 혹은 낙인화 대상을 주요 주제로 다루기보다 낙인 단어가 단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낙인찍히는 대상은 ‘개인’인 경우가 절반가량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낙인찍는 주체는 기자(작성자)가 아닌 기사에 등장한 인용문인 경우가 많았으며, 주로 교수, 정부 관계자, 정치인, 법조인과 같은 인용문으로부터 낙인이라는 단어와 낙인화 대상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집단주의적 문화 특성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는 나와 다른 집단을 구분하는 이분화된 선긋기와 강한 범주화를 통한 낙인화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낙인 용어가 사용된 방식을 살펴보았을 때, 낙인화 대상을 주제로 다룬 기사보다 본문에 낙인이 단순 언급된 기사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우리 사회의 낙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보다 언론이 "낙인" 용어를 부수적으로 단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낙인의 사소화(trivialization)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학술적 가치와 실무적 방향성을 논하였다.

핵심어 : 사회적 낙인, 집단주의, 집단범주화, 뉴스 미디어, 낙인의 사소화

1. 서론

낙인(stigma)은 사람이나 사물을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존재로 구분하여 특징 지우는 사회적 인식이다. 낙인은 사회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학습되고 합의된 문화적 결과물이다(Goffman, 1963). 다양한 미디어와 상호작용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미디어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낙인화하는 방식은 우리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2020년 코로나19 초기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보도는 미디어의 낙인찍기를 통한 낙인찍힘 현상을 잘 보여주었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친 원인 중 하나는 코로나 검사받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의 시선이었다(윤인경, 2020). 뉴스 특보라는 이름으로 클럽 가는 '그들'이 문제라는 사회적 담론이 지배적이었고, 직업과 동선을 숨긴 확진자의 잘못은 명백하지만, 미디어를 통한 성소수자 낙인은 검사받기를 주저하게 했다(안순태, 2020).

미디어를 통한 낙인화(stigmatization) 현상은 사회 속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고정관념(stereotype), 편견(prejudice), 차별(discrimination)을 표면화시킬 수 있다(Pescosolido, Martin, Lang, & Olafsdottir, 2008; Smith, Zhu, & Quesnell, 2016). 사람이나 사물을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존재로 선긋기하여 범주화함으로써 특정 집단이나 질병을 향한 고정관념을 만들어내어 인식의 틀이 형성된다. 고정관념을 통한 인식의 틀은 범주화된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인 편견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행동적 반응인 차별을 유도한다. 낙인화 과정에서 낙인화 대상에 대한 낙인찍힘이 발생하고, 의도적인 낙인찍기 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함으로써 낙인찍기에 동참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디어는 낙인 문제를 공론화시킴으로써 해결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 낙인을 부수적이고 사소한 것으로 단순 보도함으로써 이를 유지, 강화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낙인의 사소화 현상(trivialization of stigma)으로 지적되며 우려를 낳는다(Parrott & Eckhart, 2021).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다층적으로 보여주었다.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선 사회구성원 간 상호신뢰와 협력이 요구되지만, 특정 집단과 이에 소속된 대상을 향한 낙인이 두드러졌다(김민아·성지민, 2022; Abdelhafiz & Alorabi, 2020).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뿐만 아니라, 감염자가 어떤 집단에 속했는지에 따라 이들을 향한 혐오와 비난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했다(Bhanot, Singh, Verma, & Sharad, 2021; Choi, 2021). 여기에 더해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이 대립하여 서로를 향한 폭력적 언행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극화 현상(group polarization)까지 발생했다(Flores et al., 2022).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팬데믹 기간 중 드러난 한국 사회의 낙인

문제를 커뮤니케이션학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낙인 문제에 관한 고찰은 건강하고 정당한 사회 발전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낙인이 개인의 자유와 존엄은 물론 사회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 학계에서는 낙인 감소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해왔다(Barron & Hebl, 2010; Goffman, 1963; Hatzenbuehler et al., 2013; Smith et al., 2016).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는 주류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낙인찍힌 대상에 관한 거대담론과 재현 방식 등을 살피며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제도적 개선을 제안한다(이하나·안순태, 2015; Anderson & Bresnahan, 2013; Toyoki & Brown, 2014). 이렇듯 낙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주로 특정 대상과 이슈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국내 낙인 연구의 대다수는 국외에서 정의된 낙인 개념과 측정 척도를 토대로, 개인에게 미치는 낙인의 파급효과를 지적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의 낙인 전반을 파악해봄으로써 "주류집단은 누구(무엇)를 어떠한 속성에 근거해 낙인찍고 사회로부터 배척하는 것인가"를 탐구한 연구는 부족하다.

비록 낙인은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한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는 이러한 낙인으로부터 개인과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낙인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낙인과 그 특징을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익숙하지 않은 대상을 향한 근거 없는 고정관념과 차별적 태도로 정의되는 낙인은 사회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적인 속성을 지닌다(Goffman, 1963; Link & Phelan, 2001). 다양한 문화가 섞이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나와 같은 사람", "내가 속한 집단"이라는 동질성은 중요한 문화적 가치 중 하나이며, 이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암묵적이지만 엄격한 기준으로 작동한다(이재호·조긍호, 2014; 조긍호, 1996). 이러한 사회에선 내(우리) 편이 아닌 다른 편을 향한 편견과 심리적 거리감이 당연시될 수 있다. 즉, 낙인찍는 대상과 그를 향한 비난의 정도는 시대와 문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Becker & Arnold, 1986), 특정 사회의 낙인 문제는 반드시 그 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낙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작동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사회에 내재한 낙인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낙인은 우리 일상에 내재해 평소엔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현실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미디어를 통해 두드러진다(Pescosolido et al., 2008; Smith et al., 2016). 특히 뉴스 미디어는 사회적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투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Martin, Schofield, & Butterworth, 2022; Van Dijk, 2009),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표면화되는 채널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회의 규범과 현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뉴스 미디어를 낙인 관찰의 대상으로 주목하고, 코로나19 시

기 한국의 주류언론에서 보도된 기사에서 낙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논하고자 한다. 낙인 단어의 사용을 통해 한국 사회의 낙인찍기와 낙인찍힘을 살펴보고자, 이번 연구는 방송 뉴스를 제외하고 텍스트 기반의 신문 기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낙인'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기사 주제와 함께, 해당 단어가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가 관심을 두는 주요 낙인 유형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기사에 등장한 낙인을 누가 언급했는지 조사하여 낙인찍기의 주체와 대상을 확인하고, 이 속에 반영된 낙인화 속성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주변화되는 대상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팬데믹이라는 혼동의 시기를 겪으면서 사회 불평등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특정 집단을 향한 낙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력 못지않게 위협적이자 사회의 또 다른 무질서를 초래했다(Abdelhafiz & Alorabi, 2020; Bhanot et al., 2021). 이러한 시점에 뉴스 기사에서 어떠한 낙인이 두드러졌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과 격차의 문제를 조망할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19에 관한 개별적 낙인을 다뤘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낙인 전반을 주목한 본 연구는 주류 권력에 의해 소수자들을 낙인찍는 사회적 작동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낙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문헌검토

1) 낙인(stigma)에 대한 이해: 낙인찍기와 낙인찍힘

낙인(stigma)이란, 사람이나 사물을 부족한 존재로 범주화하여 틀에 박힌 고정관념과 연결해 인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부정적 태도인 편견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차별이 발생하는 과정이다(Jones, 1984; Link & Phelan, 1999). 낙인화(stigmatization)는 사회 주류이거나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힘이 없는 소수 집단이나 익숙하지 않은 대상을 구분 짓는 현상으로도 설명된다(Link & Phelan, 2001). 이렇게 낙인화된 대상은 그들의 가치를 평가절하당하고 사회로부터 구조적 불평등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향해 자기 낙인(self-stigma)을 씌우며 움츠러들고 사회로부터 멀어지려 한다(Hatzenbuehler et al., 2013; Hirschfield & Piquero, 2010; Smith et al., 2016). 즉, 낙인찍기와 낙인찍힘 속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위계 구조가 작동한다.

주시할 점은 사회적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곧 낙인찍기로 인해 낙인찍힘이 발생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동시에 낙인 현상을 주목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즉,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낙인화된 대상을 깎아내리며, 낙인화되지 않은 구성원들이 낙인화된 대상에 대한 비난에 가담할 것을 설득한다(Smith et al., 2016). 동시에 낙인찍힌 대상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평가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며 사회적 낙인을 내재화하게 된다(Livingston & Boyd, 2010). 낙인을 내재화한 사람은 낮아진 자존감을 경험하며, 낙인찍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Friedman et al., 2022). 리빙스톤과 보이드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낙인을 내재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내재화된 낙인은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언쇼, 스미스, 챠도르, 아미코, 그리고 코펜헤이버(Earnshaw, Smith, Chaudoir, Amico, & Copenhaver, 2013)의 연구에서도 HIV 감염인에 대한 내재화된 낙인은 HIV 감염인으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도록 하며,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상황인 병원 방문이나 치료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내재화 및 차별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강병철, 2011; 김미영·전성숙·변은경, 2017; 박경, 2020).

낙인화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문제는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가진 특성을 바탕으로 자신을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 구성원에 소속됨으로써 사회적 유대감과 자존감을 얻는다(Haslam, Haslam, Jetten, Cruwys, & Dingle, 2020; Tajfel, Turner, Austin, & Worchel, 1979). 개인은 집단을 자신이 소속되었다고 생각하는 내집단과 소속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외집단으로 범주화하며, 외집단과 내집단을 비교하고 평가한다(Trepte & Loy, 2017). '우리'와 '그들'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진 후,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내집단 편향이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외집단은 낮게 평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Tajfel & Turner, 2004). '그들'로 분류된 외집단 구성원은 나와 다른 이질적인 집단으로 여겨지는데, '그들'의 속성이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연결될 때 낙인이 발생하며, '그들'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정적인 집단으로 평가되며 배척된다(Link & Phelan, 2001; Major & O'brien, 2005).

특정 대상을 향해 낙인이 발생하는 과정은 앞서 설명한 사회 정체성 이론과 더불어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에 근거한다. 낙인이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나 행동을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만큼, 문제의 원인(onset)과 해결(offset)에 대한 통제성(controllability)을 기반으로 편견과 차별을 설명하는 귀인이론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Weiner, Perry, & Magnusson, 1988). 이에 따라 많은 연구에서 낙인화 대상에 관한 통제

성 귀인을 수정하면, 낙인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HIV·비만 등 낙인화 수준이 높은 질병의 경우, 질병 발생의 원인을 대체로 환자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비난이 따르게 된다. 반대로, 질병 발생을 개인이 통제 불가능했다는 점을 재인식시키면, 이들을 낙인 지우려는 태도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통제성 귀인과 함께, 사회 정체성 이론이 설명하는 집단범주화에 따른 낙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낙인찍기는 성공과 실패가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문화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권력을 가진 사회의 주류 집단은 규범에 맞지 않는 집단을 비정상으로 구분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반대 세력을 분열시킨다(Friedman et al., 2022). 특히, 집단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진 한국 사회는 외집단과 내집단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며, 사회적 규범에 벗어난 대상, 즉 자신들의 집단에 속하지 않는 외집단을 배척하고 낙인찍는 양상을 보인다(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 2011).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의 낙인화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내가 속하지 않은 나와 다른 외집단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Kim, Cheon, Gillespie-Lynch, & Kim, 2022). 이러한 낙인화의 문제는 비단 질병이나 계층 이슈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정치집단의 의견극화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선우현, 2018; 임성우, 2013).

한국 사회의 낙인 현상이 집단 구분에 기인하는 이유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집단주의적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내가 속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누는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우리 동네 등 '우리'라는 언어로 구분하는 소통 방식은 내집단 편향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이 낙인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낙인찍기와 관련한 뉴스 보도 방식을 살펴본 리와 안(Lee & An, 2016)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 발생이 자살 시도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설명보다 자살 위기는 우리의 문제라고 내집단화하는 프레이밍 방식이 낙인 감소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문화권에서 공유하는 낙인화 대상과 이를 대하는 태도는 다른 문화권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낙인 현상을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주관적 해석·평가·반응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낙인과 미디어

미디어는 사건의 특정한 측면을 강조, 생략, 축소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유도한다(Entman, 1991).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 가치, 이데올로기 관점

으로 실제 세상을 바라본다(Gerbner, 1973). 이때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사회 내에 있는 지배적 가치이다(Williams, 1985). 문화계발이론(Cultivation Theory)에 따르면 미디어는 수용자에게 사회를 보는 방법을 계발하는데,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그 속에서 전달되는 관점으로 실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Gerbner, 1973). 이러한 미디어의 기능으로 인해 사람들은 특정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목하게 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왜곡과 편견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미디어가 낙인화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게 되면, 수용자는 그 정보를 사회의 규범으로 인식하게 되며, 수용자는 자연스럽게 미디어가 전달하는 가치, 신념, 이데올로기를 습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주류 사회의 시선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의 재현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기 쉽다(Hall, 1982). FINIS(Framework Integrating Normative Influences on Sigma)는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규범에 관해 설명하는데, 이중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특정 집단에 대한 이미지는 해당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도록 만들어 낙인에 영향을 미친다(Pescosolido et al., 2008). 미디어에 노출된 수용자는 미디어의 메시지가 현실의 재구성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나타난 현실을 실제적 현실로 인식하게 된다(정연구·송현주·윤태일·심훈, 201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도 현실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배척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젠더화된 폭력에 대한 뉴스 보도의 경우 한국의 가부장적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피해자인 여성에게 부주의의 책임을 묻거나 비난한다(홍지아, 2017). 또한, 장애인에 대한 미디어 재현 역시 비장애인보다 열등한 존재, 도움을 받는 동정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최재현·이숙정, 2022; Botha & Harvey, 2022).

특히 뉴스 미디어는 여러 공공 의제 중 특정 의제를 결정하는 힘을 갖는다. 뉴스 미디어는 주류 집단을 대표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이슈들을 대체로 뉴스를 통해 보고 듣는다(McCombs, 2005). 낙인찍힌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람들의 행동 역시 뉴스를 통한 정보 습득을 통해 이루어진다(Corrigan, Powell, & Michaels, 2013; Pescosolido et al., 2008). 더욱이 권위주의적이고 집단중심의 문화권인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외집단에 대한 정보를 뉴스를 통해 듣는데, 미디어에 의한 간접경험은 정신질환, 이주민,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든다(신학진, 2013; 이하나·안순태, 2020). 한편, 미디어를 통한 간접경험이 고정관념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인화 대상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뉴스를 통해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접촉가설(contact hypotheses)은 설명한다(Parrott & Eckhart, 2021).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뉴스 미디어에서는 "우리"

와 "그들"이라는 용어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Lee & An, 2016).

스미스(Smith, 2007, 2011)의 낙인 소통 모델(model of stigma communication)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낙인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주요 요소로, '우리'와 '그들'이 구분되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식(mark)과 레이블링(labelling)을 제안한다. 주류 사회의 규범에 맞지 않는 대상이 가진 차이점이 인식(mark)되면, 그 차이점은 부정적인 의미와 연결되고 정상과 구별된 비정상으로 낙인찍힌다(Smith, 2007, 2011). 이때 낙인찍힌 대상을 부정적인 의미로 이름 붙이는 레이블링(labelling)이 이루어지는데, 레이블링된 대상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며 구분된다(Smith, 2007, 2011).

3) 뉴스 미디어의 보도 방식과 낙인의 사소화

뉴스 기사는 어떠한 대상이 빈번하게 낙인찍히는지, 어떻게 낙인찍히는지 파악함으로써 특정 낙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알아보는 척도가 될 수 있다(Parrott & Eckhart, 2021). 낙인찍힌 대상을 향한 뉴스 기사의 프레이밍(framing)은 주류 사회의 문화적 규범을 반영하며, 낙인의 형성과 확산에 기여한다. 따라서 뉴스 기사를 연구함으로써 언론이 고정관념, 편견, 차별 등 낙인의 구성 요소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낙인의 형성과 해소에 있어 언론의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Parrott & Eckhart, 2021). 지금까지 대다수의 낙인 연구는 비만, 정신질환 등 개별 이슈에 초점을 두고, 뉴스 기사의 보도 방식을 살펴보았다(Anderson & Bresnahan, 2013; Harper, 2005). 한편, 국내에선 뉴스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낙인을 살펴본 연구는 국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으며, 대체로 정신질환에 치우쳐있는 편이다(백혜진·조혜진·김정현, 2017; 이하나·안순태, 2013; 황애리·나은영, 2018).

뉴스 유형은 크게 사건 전달에 초점을 두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사건 설명이 들어간 피처(feature) 기사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기사 작성방식에 따라 뉴스 프레임은 물론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 아이엔거(Iyengar, 1994)는 위와 같은 뉴스 메시지 제시 형식을 토대로 일화적 프레임(episodic frame)과 주제적 프레임(thematic frame)으로 구분했다. 주제적 프레임은 사건 자체의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일화적 프레임은 특정 이슈를 개인이나 집단의 사례(exemplification)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주제적 프레임의 뉴스기사에는 상대적으로 전문가 의견이 자주 등장하고, 일화적 프레임은 사적인 이야기가 다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인화된 이슈에 관해 일화적 프레임의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면, 사회 보편적인 문제보다는 특정 개

인의 문제로 인식해버리게 된다(Major, 2009; Yang & Parrott, 2018). 즉, 낙인 문제를 일부의 문제로 사소화해버리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패럿과 에크하트(Parrott & Eckhart, 2021)는 특정 의제에 한정하지 않고 낙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뉴스를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뉴스 기사가 낙인에 대해 어떻게 전달하는지, 언제 낙인이 언급되는지 확인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론은 낙인이라는 용어를 부적절하게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패럿과 에크하트는 이를 낙인을 사소한 문제로 하찮게 여기는 현상, 낙인의 사소화(trivialization)이라고 설명한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낙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공론화시키는 대신 낙인을 부수적인 존재로 단순 언급하는 경향이 미국 주요 언론보도를 통해 관찰되었다. 위 연구의 확장으로, 본 연구에서도 특정 대상이나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코로나19 시기에 보도된 낙인에 관한 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낙인 전반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관심을 두는 주요 낙인 이슈를 파악하고자 한다. 문화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낙인이 포함하는 개념적 요소와 낙인화 수준, 낙인화 대상을 향한 이미지, 사회적 낙인의 영향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Link & Phelan, 2001; Yang et al., 2007), 한국 사회의 낙인 사소화 현상에 대한 고찰은 기존 미국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와 또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낙인을 주류 집단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개념에서 접근했을 때(Link & Phelan, 2001; Smith, 2007, 2011),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낙인화 대상의 초점이나 낙인을 언급한 주체 등은 낙인 수준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낙인 문제를 공론화시킬 수 있는 낙인에 초점을 둔 기사와 대조하여 낙인을 단순 언급하면서 특정 집단이나 질병을 레이블링(labeling)하는 낙인을 부수적인 것으로 기술하는 기사를 얼마나 생산하였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류언론을 통해 표면화된 한국 사회의 낙인화 현상을 탐색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여기에 더해, 본 연구는 낙인 단어를 언급하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낙인 문제가 무언인지를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통해, 낙인찍힘과 낙인찍힘 현상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한국의 주요 언론보도에 나타난 낙인 단어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낙인화 대상과 이를 향한 사회적 시

선을 살펴보고자 한다. 탐색적 연구주제인 만큼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기사 주제에 따라 낙인 문제에 초점을 둔 기사의 비율이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기사 주제에 따라 낙인찍힘의 대상이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3: 낙인 단어를 언급한 대상을 통해 살펴본 낙인찍기의 주체는 누구인가?
연구문제 4: 낙인 단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주제)의 기사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가?

4.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전국 종합일간지에 실린 낙인 관련 뉴스 기사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언론을 통해 다뤄진 한국 사회의 낙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11개 종합일간지 모두를 자료 수집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사 수집 기간은 코로나19 시기를 겪는 중 나타난 사회적 이슈와 낙인을 연관 지어 살펴보고자 해당 바이러스가 출현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로 한정했다. 즉,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코로나19 시기에 종합일간지 11곳에 보도된 낙인 관련 뉴스 기사이다.

2) 자료수집

분석 대상인 뉴스 기사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bigkinds.or.kr)를 이용했다. 뉴스 검색을 위해 “낙인”, “스티그마” 단어를 사용했으며,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자료를 수집한 시점인 2022년 10월 8일로 지정했다. 총 11개 종합일간지(경향, 국민,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를 자료원으로 선택해 기사를 검색한 결과 총 9,283건의 기사가 수집됐다. 수집된 기사 중에는 같은 언론사에서 보도된 중복된 내용의 기사들이 있었으며, 이를 모두 제외한 7,729건의 기사가 분석되었다.

3) 분석 방법

(1) 내용분석

본 연구는 내용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혼합하여 자료를 분석했다. 텍스트 분석은 다량의 데이터에 나타나는 주요 단어의 빈도수와 단어 간 연결성을 통해 기사 주제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하지만 단어의 출현 빈도가 분석에 초점이 되다 보니, 기사의 전체 맥락 속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나 세부적인 요소들을 세세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기사에 낙인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낙인찍히는 대상과 낙인을 찍는 대상이 무엇(누구)인지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전통적 기사 분석 방식인 내용분석을 병행했다.

분석은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한 세 명의 대학원생이 직접 기사를 읽고 내용분석을 진행했으며, 전체 7,729건의 기사를 1)기사의 초점, 2)낙인화 대상, 3)낙인찍는 주체 등을 파악했다. 방대한 양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달에 걸쳐 분석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코더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독립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게 하였으며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기사의 5%인 약 300개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분석항목 및 코더 신뢰도 값은 〈Table 1〉에 제시했다. 4달에 걸쳐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연구팀과 개별 코더와의 회의가 별도로 진행되어 세 명의 코더가 독립적으로 분석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는 낙인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미국 뉴스 기사를 분석한 패럿과 에크하트(Parrott & Eckhart, 2021)의 연구를 참고해 분석 유목과 조작적 정의를 설정했다. 우선, 기사의 초점(news focus)은 뉴스 기사가 낙인 문제(혹은 낙인화 대상)를 주제로 하고 있는지(main topic), 아니면 낙인이라는 단어가 기사에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인지(incidental)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낙인 문제가 심각하다"와 같이 기사 전체의 초점이 낙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낙인 관련 이슈를 다루고자 한 경우에는 "낙인화 대상을 주제로 하는 기사"로 코딩했다. 반면, "정치적 도발 행위로 낙인찍고 단호히 규탄 배격한" 등과 같이 낙인 문제를 다룬 기사가 아니고 단순 언급된 경우는 "낙인이라는 단어가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기사"로 코딩했다.

두 번째 코딩 항목인 낙인화 대상(stigmatized objects)은 기사에 언급된 낙인 단어가 누구를 향하는가로, "개인, 집단, 질병, 지역, 또는 이슈/정책"으로 유형을 구분했다. 예를 들어, 낙인 단어가 "우울증", "코로나19" 등과 함께 언급됐다면 "질병"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정신질환자"와 함께 사용됐다면 "개인"으로 구분했다. 집단은 "코로나19 신천지 종교", "특정 정당" 등의

경우로, 이슈/정책은 "무료 생리대 지원", "임대주택" 등의 경우로 구분했다.

세 번째, 낙인찍는 주체는 낙인 단어를 언급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통해 파악했으며, "기자가 직접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기사 내 인용문을 통해 언급됐는지" 조사했다. 인용문을 통해 언급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언급했는지 대상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직접 주관식으로 작성했다. 〈Table 1〉은 3개 변인의 조작적 정의와 세부 항목을 보여준다.

Table 1.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and Inter-coder Reliability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s	Coding	Cohen's kappa
News focus	Whether stigmatized objects were the main topic of the news story or just mentioned as an incidental topic	1) main topic, 2) incidental topic	.97
Stigmatized objects	A target of stigma	1) person(s), 2) group, 3) disease/illness, 4) issue/policy	.92
Stigmatizer	Who mentioned the stigmatized objects in the news article	1) journalist 2) quotation ( )	.96

(2) 텍스트 분석

내용분석을 마친 후, 수집된 기사에서 낙인 단어를 언급하면서 사용된 주요 키워드와 토픽들을 살펴보기 위해 텍스트 분석을 시행했다. 텍스트 분석에 사용한 기사는 내용분석에서 낙인 문제를 주제로 한 기사로 분류된 기사들이다. 보통 텍스트 분석을 할 때는 원자료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빅카인즈에서는 검색된 뉴스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와 전체 기사 내용을 대상으로 이미 형태소가 처리된 키워드를 함께 제공한다. 따라서 별도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빅카인즈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정제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하나는 기사 원문 전체를 대상으로 형태소 처리를 한 목록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 내용 중 자주 등장하는 단어에 가중치를 부여해 해당 기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상위 50개 키워드 목록이다. 본 연구는 전체 목록이 아닌 가중치가 부여되어 추출된 상위 50개 키워드를 활용해 토픽 모델링을 실시했다. 잠재적 디리클레 할당 모델(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을 기반으로 토픽 모델링을 시행했으며, 주제별 추출된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사 주제를 확인했다.

5. 연구결과

1) 낙인 단어가 언급된 기사의 주제와 초점

연구문제 1은 기사 주제별로 낙인 문제에 관한 기사의 초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수집된 기사들의 주제를 분류했다. 빅카인즈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는 해당 기사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어디에 속하는지 기사 분류 정보가 포함된다. 이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낙인이 가장 많이 언급된 기사가 속한 상위 주제는 "사회(n=3,325, 44.2%)"로 확인됐으며, 다음으로 "정치(n=1,948, 25.9%)", "문화(n=817, 10.9%)", "국제(n=651, 8.6%)", "경제(n=500, 6.6%)", "지역(127, 1.7%)", "스포츠(n=82, 1.1%)", "과학(n=79,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낙인 단어가 언급된 기사의 초점을 주제별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전체 분석대상 중 낙인 문제 혹은 낙인화 대상을 주요 주제로 다룬 기사보다(n=1,894, 25.2%) 본문에 낙인 단어가 단순 언급된 기사의 비율(n=5,635, 74.8%)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Table 2〉 참조), 이러한 경향은 "정치", "경제", "문화"로 주제가 분류된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기사 주제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428.84, df=7, p<.001). 구체적으로 "정치" 분야 기사의 경우 낙인이 단순 언급된 경우가 전체의 88.9%임에 반해, 낙인을 주제로 한 기사는 11.1%에 그쳤으며, "경제" 기사의 경우 단순 언급이 85.4%, 주제로 언급된 경우가 14.6%였다. 또한 "문화" 기사의 경우도 단순 언급이 78.8%, 주제로 언급된 것은 21.2%였다.

예를 들어, 정치 주제에 속한 기사 중에는 "남편의 대선 유세 당시 얻은 '성난 흑인 여자'라는 낙인이 상처가 됐는지 정치엔 넌더리를 낸다고 한다", "당밖의 비판에라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그 지지자들이 단체로 달려들어 토착 왜구로 낙인찍어 양념질을 해대니, 할 말이 있어도 감히 입을 못 여는 분위기다"고 주장했다" 등과 같이 낙인 단어가 단순 사용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유지 및 강화하는 내용이 많았다.

Table 2. Cross-tabulation Results of News Sections and the Focus of News Topic

	Main N (%)	Incidental N (%)	Total N (%)
Society	1,159 (34.9%)	2,166 (65.1%)	3,325 (100%)
Politics	216 (11.1%)	1,732 (88.9%)	1,948 (100%)
Economics	73 (14.6%)	427 (85.4%)	500 (100%)
Culture	173 (21.2%)	644 (78.8%)	817 (100%)
International	207 (31.8%)	444 (68.2%)	651 (100%)
Sports	21 (25.6%)	61 (74.4%)	82 (100%)
Region	21 (16.5%)	106 (83.5%)	127 (100%)
Science/IT	24 (30.4%)	55 (69.6%)	79 (100%)
Total	1,894 (25.2%)	5,635 (74.8%)	7,529 (100%)

χ^2=428.84, df=7, p〈.001

2) 낙인찍힘의 대상

연구문제 2는 수집된 기사에 나타난 낙인찍힘의 대상을 기사 주제별로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낙인찍힘의 대상을 개인, 집단, 지역, 질병, 특정 행동, 이슈/정책으로 구분한 후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낙인화 대상 중에는 "개인"을 향한 경우가 50.6%(n=38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집단"을 향한 낙인이 전체 중 16.6%(n=1249), "지역"이 14.2%(n=1072), "이슈/정책"이 12.2% (n=917)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낙인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질병 자체에 대한 낙인은 3.7%(n=28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후 주제에 따라 낙인화 대상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χ^2=1511.79, df=35, p〈.001). 〈Table 3〉에 제시되었듯이, "지역"을 향한 낙인은 지역(34.6%)과 사회(23.4%)를 주제로 한 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정 행동"에 대한 낙인은 경제(38.0%)와 정치(27.3%)를 주제로 한 기사에서 가장 높았다. 예를 들어, 사회 주제에 속한 기사 중 지역을 향한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불법어업 국가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기도 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대구 낙인이 커지고 있다" 등이다. 정치 주제에 속한 기사 중 특정 행동에 낙인을 부여한 예는 "경기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유교 전통이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 손윗사람에게 쌍욕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면 곧바로 패륜아로 낙인 찍힌다",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낙인이 찍어버렸어요" 등이다.

Table 3. Cross-tabulation Results of News Sections and the Target of Stigma

	Target of stigma						Total
	Person(s)	Group	Disease	Region	Specific behavior	Issue/ Policy	
Society	1708 (51.4%)	186 (5.6%)	305 (9.2%)	778 (23.4%)	265 (8.0%)	83 (2.5%)	3325 (100%)
Politics	1061 (54.5%)	11 (0.6%)	238 (12.2%)	76 (3.9%)	531 (27.3%)	31 (1.6%)	1948 (100%)
Economics	90 (18.0%)	2 (0.4%)	174 (34.8%)	40 (8.0%)	190 (38.0%)	4 (0.8%)	500 (100%)
Culture	475 (58.1%)	51 (6.2%)	104 (12.7%)	61 (7.5%)	93 (11.4%)	33 (4.0%)	817 (100%)
International	328 (50.4%)	26 (4.0%)	49 (7.5%)	65 (10.0%)	142 (21.8%)	41 (6.3%)	651 (100%)
Sports	68 (82.9%)	1 (1.2%)	7 (8.5%)	1 (1.2%)	1 (1.2%)	4 (4.9%)	82 (100%)
Region	61 (48.0%)	1 (0.8%)	11 (8.7%)	44 (34.6%)	10 (7.9%)	0 (0.0%)	127 (100%)
Science/IT	21 (26.6%)	3 (3.8%)	29 (36.7%)	7 (8.9%)	17 (21.5%)	2 (2.5%)	79 (100%)
Total	3812 (50.6%)	1249 (16.6%)	281 (3.7%)	1072 (14.2%)	198 (2.6%)	917 (12.2%)	7,529 (100%)

χ^2 =1511.79, df=35, $p < .001$

3) 낙인찍기의 주체

연구문제 3은 기사 주제에 따라 낙인찍기의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자에 의해 언급된 경우와 인용문에서 언급된 경우로 구분해 내용분석을 시행했다. 분석 결과, 전체 기사 중 53.2%(n=4007)가 기사를 쓴 기자(작성자)가 아닌 기사에 등장한 인용문에서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낙인 단어가 등장할 경우 “교수”, “정부 관계자”, “정치인”, “법조인”, “의사”, “전문가” 등 우리 사회의 엘리트층 및 권력 집단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원내대변인도 문 전 대통령이 답 없이 되돌려 보낸 메일이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등과 같은 형식으로 등장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사 주제별로 낙인 단어를 언급하는 대상이 달라지는지 확인했으며 이에 관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기자에 의해 낙인이 언급된 기사는 “스포츠”, “경제”, “과학”에서 많았던 반면, 상대적으로 기사 내 인용문에서 언급된 경우는 “정치”, “사회”와 관련된 주제에 많았다. 특히, “정치” 주제와 관련된 기사에서는 인용문에서 낙인이 언급된 경우가 기자에 의해

언급된 경우보다 약 2배 가까이 더 많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됐다(χ^2=398.65, df=7, p<.001).

Table 4. Cross-tabulation results of news sections and the stigmatizer

	Stigmatizer		Total
	Journalist	Quotation	
Society	1,503 (45.2%)	1,822 (54.8%)	3,325 (100%)
Politics	630 (32.2%)	1,318 (67.7%)	1,948 (100%)
Economics	336 (67.2%)	164 (32.8%)	500 (100%)
Culture	489 (59.9%)	328 (40.1%)	817 (100%)
International	373 (57.3%)	278 (42.7%)	651 (100%)
Sports	70 (85.4%)	12 (14.6%)	82 (100%)
Region	69 (54.3%)	58 (45.7%)	127 (100%)
Science/IT	52 (65.8%)	27 (34.2%)	79 (100%)
Total	3,522 (48.8%)	4,007 (53.2%)	7,529 (100%)

χ^2=398.65, df=7, p<.001

4) 토픽 모델링을 통해 살펴본 낙인 단어가 언급된 기사 주제

연구문제 4는 낙인 단어가 언급된 구체적 이슈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회/정치/경제/문화/국제/스포츠/지역/과학 등 8개의 주제로 기사들을 1차 분류한 후, 각 주제에 속한 기사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실시했다. 국제/스포츠/지역/과학 등으로 분류된 경우는 기사의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지 않았다. 즉, 본 연구는 4개의 주제군에 속한 기사를 대상으로 각각 4번에 걸쳐 LDA 토픽 모델링 실시했으며, 이때 사용한 데이터는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상위 50개 단어 목록이다. 분석은 Python의 토픽 모델 처리 패키지 함수를 이용했으며, α 값은 50/k (토픽의 수), η 값은 0.01을 적용하고, 사후 분포 추정 방법으로 베이지안 추정법의 일종인 Gibbs sampling을 적용해 10개의 토픽부터 줄여나 작업을 시행했다. 토픽의 수는 토픽의 해석 가능성과 타당도 등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범주화가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토픽의 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토픽의 명명은 도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다(Maier et al., 2018).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토픽 모델링의 웹 기반 시각화 도구인 LDAvis 패키지를 참고해 여러 차례 다른 토픽 수를 부여해 보고, 각각의 Inter Distance Map (IDM), 토픽 간의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를 확인 후 최대한 토픽들이 서로 겹치지 않으며, 경계가 명확한 k수를 최종 토픽 수로 결정했다. 이후 토픽별로 가중치가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토픽이 의미하는 내용을 파악했다.

<Table 5>는 4개 주제별 토픽모델링 결과이다.

토픽 모델링 결과와 토픽별 상위 단어를 토대로 낙인 단어가 언급된 이슈를 확인했다. 이후 기사에서 낙인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는지를 수집한 기사 원문과 함께 질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4가지로 구분해 낙인 단어가 언급된 기사의 주제(토픽)와 해당 단어와 함께 언급된 집단을 제시했다.

Table 5. Results of News Topic Modeling

Category	Theme	%	Keywords
Society	Social exclusion	29.5	disabled, sexual minority, women, human right, victims, abortion, abuse, living
	Disease/Health	23.2	COVID-19. Mpox, mental illness, hospital unvaccinated, depression, homosexuality
	Education	17.5	school, violence, student, learning gap, university, crisis, care, low-income, youth
	Labor/Welfare	11.4	workers, minimum wage, public housing, layoff, inequality, differentiation, policy
	Events	18.4	criminals, sexual assault, lawyers, drugs, prosecutors, illegal, drink-driving, sex crimes
Politics	Congress/Party	42.2	congressman, legislator, minister, president, betrayer, traitor, political, party, conflict
	Policy	30.3	recipient, basic income, poverty, class, housing, selective, welfare, system
	Diplomacy	27.5	missile, launch, provocation, violation, invasion,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Economics	Company	22.7	bad companies, ESG, boycotts, corporations, frauds, slush fund, corruption, enterprise
	Economic general	19.2	labor market, wage, self-employed, companies, small business, management, climate change
	Real estate /Investment	24	bank, public, rental housing, young people, investor, stocks, bitcoin, investment, apartment
	Job	34.1	start-up, employer, difficulties, youth, failure, credit delinquency, employment, job market
Culture	Entertainment	53.7	actor, mental disorder, school violence, drama, avant-garde, movie, drugs, perpetrator
	Religious	46.3	church, Shincheonji, herecy, pastor, christianity, buddhism, religious fanatic, protestantism,

(1) 사회 분야로 분류된 기사의 토픽 모델링 결과

사회 분야에 속한 기사는 5개의 토픽으로 구분됐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사회적 배제>에 속한 기사들을 살펴본 결과(29.5%), “장애인 등급제도”, “여성 인권”, “이주노동

자 법률", "감염병 낙인", "코로나 차별", "성전환자의 여대 입학", "낙태" "성범죄", "영아 학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비 지원", "묻지마 범죄" 등의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에 낙인 단어와 함께 등장한 명칭을 확인해본 결과(<Figure 1> 참조), "피해자"라는 단어가 상위 키워드로 확인됐으며, "성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고문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이 관련 단어로 등장했다. "여성"이라는 단어도 상위로 노출되었으며, "생리대 지원받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성매매 여성", "임신중절 여성",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 "기지촌 여성", "경력단절 여성" 등이 관련됐다. "장애인", "자살유가족", "위안부", "정신질환자", "미혼모", "트렌스젠더" 등도 나타났다. "장애인"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 "어차피 장애인"이라는 표현도 일부 확인됐다. "트렌스젠더"를 향해서는 "정신질환", "혐오"의 대상으로,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로 언급되기도 했다.

〈질병/건강〉에 해당하는 기사(23.2%)들에서는 "코로나19", "에이즈", "우울증", "뇌전증", "비만", "ADHD", "원숭이 두창" 등을 주로 다루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원숭이두창", "에이즈" 등의 감염병 질환과 "정신질환", "인터넷/게임 중독", "뇌전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질병, "당뇨병", "비만"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낙인 단어와 함께 언급됐다(〈Figure 2〉 참조). 관련 질병 자체에 대한 낙인보다 이를 앓고 있는 환자(당사자)에게 낙인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라는 단어는 "범죄자", "나태하고 게으르고 의지가 부족한 인간",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질병"이라는 표현과 함께 나타났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 "개인 방역에 신경 쓰지 않은 사람"으로 표현되었으며, "20대 코로나19 감염자"에게는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표현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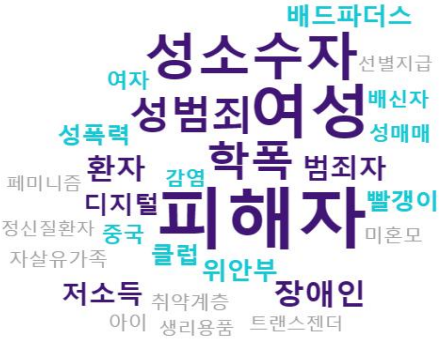

Figure 1. Social exclu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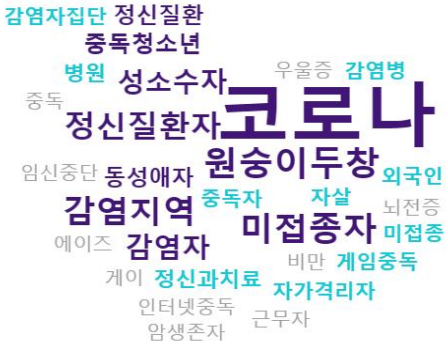

Figure 2. Disease/Health

〈교육〉으로 분류된 기사(17.5%)의 주요 내용은 “수학교육”, “기초학력고사 철폐”, “대학의 폐교 위기” 등이었다. 예를 들어,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한 학생은 집중력이 낮거나 공부에 몰입하지 못한다며 수포자로 낙인이 찍혔다” 등의 내용에서 낙인 단어가 등장했다(〈Figure 3〉 참조). 구체적으로 학생의 경우는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을 향한 “수포자” 낙인과 “문제아”, “불량 청소년”, “부진아”, “위기 청소년” 등의 명칭이 확인됐다. 또한, “급식카드”나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 “다문화 가정” 등도 낙인 단어와 함께 발견됐다. 더욱이 이렇게 사회적 제도나 보호 아래 있는 아동 청소년을 “불쌍한 아이”, “취약계층 아동”, “저소득층”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미성년 범죄와 관련된 기사에서는 “머리 나쁜 아이”,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 “사회화가 어렵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대학의 경우는 “지방대”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학교를 향한 “부실대학” 낙인이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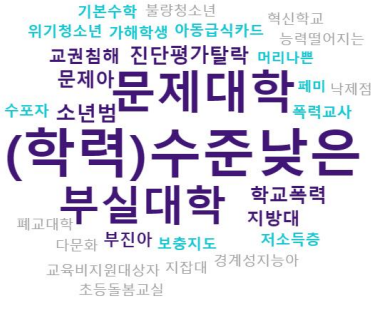

Figure 3.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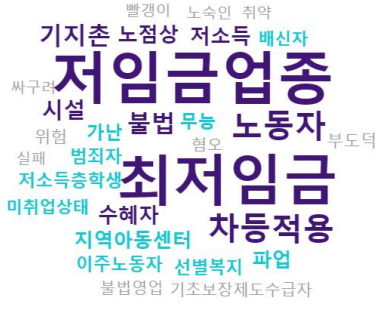

Figure 4. Labor/Welf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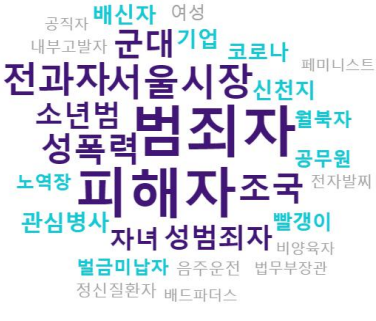

Figure 5. Events

〈노동/복지〉(11.4%)에는 “소상공인 경제”, “청년임금체불”, “기지촌 여성지원 조례”, “부동산 정책”, “저임금 업종”, “청년 고용불안” 등을 다룬 기사들이 속했다. 예시로는 “청년 장발장들은

취업 등 미래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벌금형 기록은 낙인효과를 일으킨다", "현재 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는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 등 다양한 내용이 나타났다. 여기에 속한 기사들에서 낙인 단어와 함께 나타난 단어들은 "저임금 업종"이나 "최저임금"을 받거나 "노동운동"이나 "파업"을 하는 "노동자" 등이었다(〈Figure 4〉 참조). 또한, 복지정책 혜택을 받는 "기초보장제도수급자"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학생", "이주노동자" 등도 낙인 단어와 함께 확인됐다.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을 향해 "빨갱이", "좌익", "반사회적 행동",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행동" 등의 격한 표현이 발견됐으며, "직장에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는 내용도 발견됐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구분과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수혜자"들은 "가난"과 "무능"을 상징하는 사람들로 표현됐다.

〈사건/사고〉(18.4%)에는 "마약 사건", "성범죄 미투운동",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노조 갈등", "검찰 수사", "취업 사기 피해자", "서해 피살 공무원 가족" 등을 다룬 기사들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을 윤석열 정부가 '불법 파업'으로 낙인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등의 내용을 다룬 기사에서 낙인 단어가 사용됐다. 해당 기사에 나타난 낙인화 대상으로는 〈Figure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범죄를 저지를 피의자를 "범죄자", "전과자"로 낙인찍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소년범"을 다룬 기사에서 "(소년범의) 재범 위험성이 증가한다", "갈수록 잔혹해진다" 등의 표현이 나타났으며, "범죄자"를 향해 "우리 사회의 조화와 포용의 윤리를 증진시키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영받지 못한다", "비윤리적", "불성실", "비난", "증오의 대상" 등의 반응이 나타났다.

(2) 정치 분야로 분류된 기사의 토픽 모델링 결과

정치 분야의 경우 〈국회/정당〉, 〈정책〉, 〈외교〉 등 세 가지의 토픽으로 구분됐다. 세부적으로, 〈국회/정당〉에 해당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42.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들을 다룬 기사'와 '대통령(청와대) 행동과 발언에 관한 논란", "정치인 간의 갈등", "선거 갈등" 등에서 낙인 단어가 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의석수도 밀리고 구태보수 낙인도 벗지 못한 상태에서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보수 야당엔 비호감의 낙인이 단단히 박혔다" 등과 같은 내용의 기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는 "국회의원", "정당", "(전) 대통령", "정치인" 등의 행동을 언급하는 중 이들을 "부적격", "배신자", "불신", "극우", "꼰대 정당", "무능 세력" 등도 낙인 단어와 함께 나타났다(〈Figure 6〉 참조). 예를 들어, 기사 속 "시민사회단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다주택자 공무원"을 "투기꾼", "도덕성이 낮다", "잠재적 부패 공무

원", "죄인"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전공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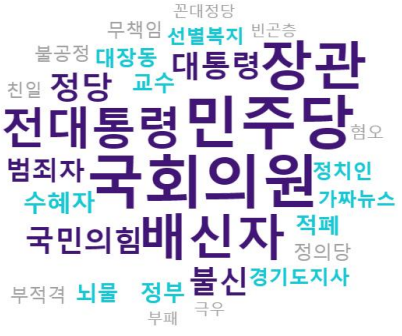

Figure 6.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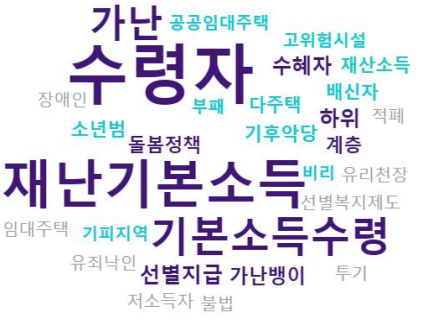

Figure 7.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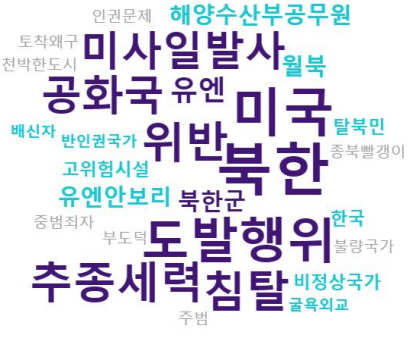

Figure 8. Diplomacy

〈정책〉에 포함된 기사 중에는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공수처 논란", "부동산 정책", "입양특례법" 등의 내용을 다룬 경우가 많았다(30.3%). "자꾸 무상급식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 사이에 낙인효과 때문에 무상급식을 한 거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만일 대선 직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금권 선거의 공범'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다." 등과 같은 기사가 여기에 포함된다. 해당 기사들에서는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을 받는 "수령자", "수혜자"가 낙인 단어와 함께 언급됐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다주택자"와도 낙인 단어가 함께 나타났다(〈Figure 7〉 참조). 또한, "선별복지제도", "선별지급" 등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려는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낙인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발견됐다.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수령시민"을 "가난뱅이", "가난한 서민"으로 레이블링하고, "받는 사람은 가난한 서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라는 이분법적 갈등이 나타나면서 양쪽 모두에 불만이 나타날 수 있다", "낙인효과로 인해 서러움이 발생하고 국민이 반반으로 나뉘어 갈등하게 된

다", "수급을 받는 사람을 자괴감을 느낀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낙인 단어가 언급된 〈외교〉 기사들의 내용은 주로 "북한과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문제와 갈등"과 관련됐다(27.5%). "친일이나 빨갱이 낙인찍기는 각각 일본 및 북한을 악마화한 뒤 이들과 닮은 구석이 있으면, 너도 역시 악마라고 몰아붙이는 방식이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은 바이든 정부가 미국이 장악해온 두 경제 기구를 이끈 게오르기에바를 공개적으로 '친중' 낙인을 찍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등의 문장에 낙인이 등장했다. 〈Figure 8〉에 제시했듯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향해 "도발 행위"를 한 "반인권 국가"로 낙인찍는 경우가 있었으며, 효율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외교활동의 결과에 관한 "굴욕외교" 등도 발견됐다. 또한, 북한을 "비정상 국가", "독재국가", "불량국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북으로 돌아간 탈북민을 "배신자"로 비난하는 기사도 상당수 확인됐다.

(3) 경제 분야로 분류된 기사의 토픽 모델링 결과

경제 분야의 경우는 <기업>, <경제 일반>, <부동산/투자>, <취업/창업> 등 4개의 토픽이 도출됐다. 우선, <기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경영 위기", "배터리 화재 사고", "대기업 규제", "기업 범죄", "구조조정" 등과 같은 내용의 기사들이 확인됐다(22.7%). 예를 들어, "다른 회사를 들어가려고 해도 '쌍용차 해고자'라는 낙인이 찍혔는데, 누가 써주겠어요?"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픽에 나타난 낙인 단어와 함께 나타난 단어를 살펴본 결과(<Figure 9> 참조), 부도덕/비윤리적이거나 불공정한 행동과 태도를 보인 기업을 향한 "악덕 기업", "나쁜 회사", "갑질 기업", "비리기업" 등이 확인됐다.

〈경제 일반〉(19.2%)에 속한 기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위기", "스타트업 지원", "기후 위기와 산업", "최저임금"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해당 토픽에 속하는 기사들에는 "최저임금", "저임금 업종", "신용등급" 등이 낙인 단어와 함께 언급되었다(〈Figure 10〉 참조). 예를 들어,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힌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져 결국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업계는 자원개발이 적폐 낙인을 떼고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낮은 최저임금이 책정된 지역에 열등 지역이란 낙인이 찍힐 수 있다" 등이 나타났다.

〈부동산/투자〉와 관련해서는 "공공주택", "임대주택", "암호화폐 투자" 등의 내용을 다룬 기사들이 주로 확인됐다(24%). 해당 기사에서 낙인 단어와 함께 나타난 단어들을 살펴본 결과 〈Figure 11〉과 같이, "은행", "임대주택 거주자", "사기피해자", "투자자", "신용불량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 등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를 살펴본 결과,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

은 금소법 위반 1호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몸을 사렸다.", "무분별한 지출과 소비, 나아가 잘못된 투자로 사회 초년생 때부터 빚더미를 떠안아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벌써 막막하다고 하는 초년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을 한곳에 모으기 때문에 '소셜 믹스(social mix)'가 어렵고 슬럼화되기 쉬운 데다 입주자를 복지에 기대어 사는 층으로 낙인찍는 효과가 있는 반면, 바우처 제도는 그런 효과가 적은 데다 수혜자가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다",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이 찍힌 서울 주택 보유자들의 분노가 특히 컸다." 등에 낙인 단어가 언급되었다.

〈취업/창업〉에는 "투자 스타트업의 위기",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학자금 대출 및 취업"과 관련한 기사들이 많았다(34.1%). 관련 기사의 예로는 "눈높이를 낮춰 첫 일자리에 조기 취업하는 행태에 낙인효과가 존재한다면 장기적인 노동시장 성과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대 출신이 낙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서울 학생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 등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사에 나타난 낙인 단어와 함께 나타난 단어들은 〈Figure 1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업에 실패한 창업자", "스타트업", "일용직",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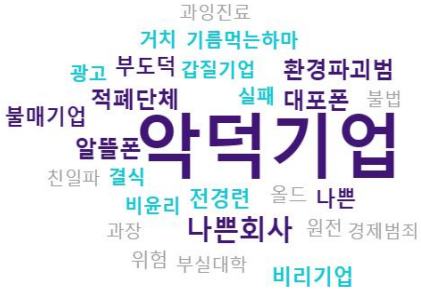

Figure 9.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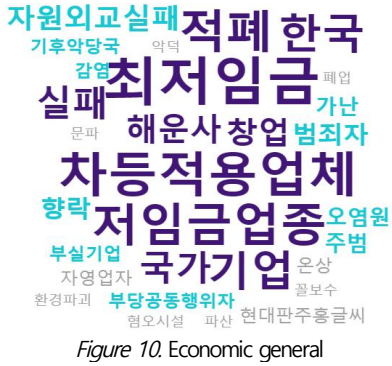

Figure 10. Economic gene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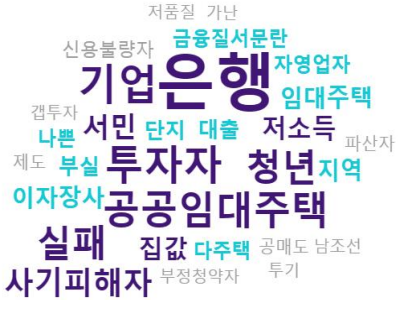

Figure 11. Real estate/Investment

Figure 12. Job

(4) 문화 분야로 분류된 기사의 토픽 모델링 결과

문화 분야의 경우는 <엔터테인먼트>와 <종교>로 주제가 구분됐다. <엔터테인먼트>로 분류된 기사(53.7%)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들의 수상”, “표현의 자유와 젠더 갈등”, “야한 영화의 정치학”, “코로나 확진 배우”, “학교폭력 연예인” 등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고 말하거나 언급한 여성 연예인들에게는 ‘메갈 연예인’이란 낙인이 찍혔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낙인 단어와 함께 언급되는 단어를 살펴본 결과, “정신질환”, “학교폭력”, “재수 없는”, “테러범” 등의 단어들이 배우의 특정 행동이나 특성, 드라마나 영화 주제와 주인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Figure 13> 참조>).

<종교>의 경우(46.3%)는 “신천지 코로나 사태”, “기독교”에 관한 내용이 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로는 “등록 당시 기독교 단체로부터 이단으로 낙인찍힌 신천지인지 몰랐는지” 등이다. 기사 속 낙인 단어와 함께 언급된 집단 명칭은 <Figure 14>에 제시했듯이, “교회”, “신천지”, “목사”, “기독교인”, “개신교”, “불교” 등이었으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편 가르기”, “몰상식한 존재”, “혐오” 등의 표현과 함께 구분짓기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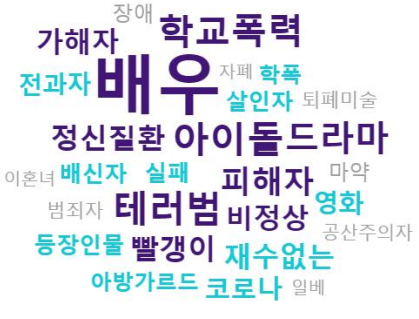

Figure 13. Entertai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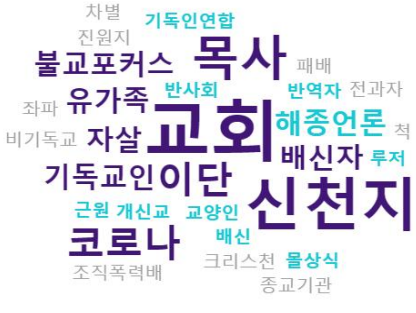

Figure 14. Religious

6.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뉴스 기사에 등장한 낙인 단어의 사용과 그 속에 등장한 낙인화 대상을 토대로 한국 사회의 낙인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해, 누가 낙인을 찍는지, 어떠한 주제와 관련된 기사에서 낙인 단어가 등장하는지 등을 내용

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주요 언론에서 낙인 단어는 사회와 정치 분야의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었으며, 낙인 문제 혹은 낙인화 대상을 주요 주제로 다루기보다 낙인 단어가 단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낙인 단어와 함께 나타난 대상은 성소수자, 정신질환자, 코로나, 미접종자, 부실대학, 저임금업종, 정신질환, 신천지, 관심병사, (복지)수령자, 도발 행위 등 개인, 집단, 질병, 행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낙인찍는 주체는 기자(작성자)가 아닌 기사에 등장한 인용문인 경우가 많았으며, 주로 교수, 정부 관계자, 정치인, 법조인 등 우리 사회의 주류 집단의 인용문으로부터 낙인이라는 단어와 그 대상이 언급되었다. 이상의 결과와 낙인 이론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논의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집단주의 문화 특성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나와 다른 집단을 구분하고 낙인찍는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분야 기사의 경우 〈사회적 배제〉라는 주제가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였고 성소수자, 성전환자, 위안부, 미혼모, 경력단절 여성 등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여성, 성소수자가 주된 낙인의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와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 또한 주된 낙인의 대상이 되었으며 수포자, 부진아, 수준 낮은 대학, 부실대학, 문제 대학 등이 교육과 관련된 낙인으로 관찰되었다. 저소득자, 최저임금, 복지 수혜자, 기본소득 수령도 낙인의 대상으로 빈번히 언급되었다.

이와 같은 낙인의 공통점은 '우리'와 '그들' 이라는 이분화된 논리이다. 이는 지배적인 규범이나 다수와 상이한 대상을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존재로 구분 짓고 비규범적 존재로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배제나 차별이 정당화된다는 점(Link & Phelan, 2001)을 주시해야 한다. 이분화된 선긋기를 통해 '그들'로 분류된 집단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시되고 있었다. 교육의 경우를 예로 들면 수준 낮은 대학이라는 낙인을 부여함으로서 수준 높은 대학과 낮은 대학, 부실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음을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문제는 이러한 기사들이 그러한 기준에 대한 논의와 의미에 초점을 두기보다 낙인이 단순 언급되며 부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낙인이 이분화된 선긋기에 단순 사용되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유지 및 강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를 낳는다. 관련하여, 박경(2020)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대라는 호명과 이에 따른 낙인이 지방대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작용해 입시 경쟁에서 스스로 실패를 자초한 이들로 내재화되고, 자기 존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낙인이 우리 일상에서 분명하게 인식되거나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현실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미디어를 통해 표면화될 수 있다(Pescosolido et al., 2008; Smith et al., 2016)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분화된 선긋기는 특히 정치, 경제 분야 보도를 통해 잘 드러난다.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을 지닌 집단이나 개인을 '그들'로 분리하고 '배신자', '부적격', '적폐' 등으로 낙인찍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치인이나 국가범죄의 피해자가 낙인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 대상이 '범죄자', '빨갱이' 등으로 낙인찍히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낙인찍기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과 토론함으로써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된 정치적 대립을 하도록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킨다는 선행 연구와도 연결된다(선우현, 2018).

이분화된 선긋기에 더하여, 강한 범주화(categorization) 현상도 관찰되었다. 진단평가에 탈락한 대학에 '수준 낮은', '부실대학'이라고 낙인찍는 것, 저임금업종에 대한 낙인, 복지정책 수혜자, 실패한 창업자에 대한 낙인은 범주화에 익숙한 한국사회의 모습을 나타낸다. 성공과 실패,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기준 설정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특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하나의 범주로 묶어 낙인화하는 현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저임금을 받는 사람, 복지지원금을 받는 사람을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기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낙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묶어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낙인찍힌 대상을 살펴보았을 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부족한 낙오된 집단은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고 배제되며, 이를 통해 아직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되지 않고 부족한 것으로 범주화되지 않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낙인찍기라는 주류 사회의 규범이 유지 및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성공과 실패가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문화에서 범주화를 통한 낙인찍기가 더 빈번하게 발생(Friedman et al., 2022)한다는 관점과 일치한다.

낙인찍기의 주체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소지한 집단이라는 것도 언론은 주류 집단을 대표하고 고정관념을 재생산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Pescosolido et al., 2008). 낙인은 사회와 정치를 주제로 한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낙인이 언급된 뉴스 기사에서 낙인 명칭을 사용한 주체는 53.2%가 인용문이었다. 인용문은 주로 교수, 정치인, 법조인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기자보다 인용문에서 낙인 단어가 더 빈번하게 사용된 경우는 정치 주제에 관련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양상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집단이 특정 대상이나 집단을 낙인찍음으로써 사회적 규범을 유지하려 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낙인의 권력적 요소와도 연결된다(Link & Phelan, 2014).

무엇보다 낙인 용어가 사용된 방식을 살펴보았을 때, 낙인화 대상을 주제로 다룬 기사보다 본문에 낙인이 단순 언급된 기사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정치, 경제, 지역에 대한 주제에서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분석대상 중에서는 우리 사회의 낙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는 취지의 기사보다 오히려 언론이 낙인이라는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점은 미국 뉴스 분석결과와 일치한다(Parrott & Eckhart, 2021). 한국과 미국의 주요 언론사 모두 낙인이라는 단어를 부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낙인 현상이 사회의 권력 체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작동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낙인이 가진 영향력과 별개로, 누구를 향해 낙인을 찍을 것인가와 낙인화된 대상의 속성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다. 미국과 한국의 언론이 같은 주제에 대해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또는 유사한 양상으로 낙인을 하찮게 여기는 현상에 동참하고 있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낙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주류언론을 통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낙인이라는 꼬리표가 다양한 집단과 문제에 대해 붙여지는 현상은 우려를 낳는다. "낙인"이라는 단어에는 단순히 특정 대상을 명칭화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파커와 아그레톤(Parker & Aggleton, 2003), 링크와 펠란(Link & Phelan, 2014) 등은 공통적으로 주류 사회는 자신들의 우월함을 유지하기 위해 비정상으로 구분된 대상을 향해 낙인을 부여하고, 결국 낙인은 사회적 불평등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즉, 낙인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이미 낙인찍힌 대상을 분리하고 거부하고 사회로부터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낙인 단어가 함축하는 고정관념과 차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뉴스 기사를 통해 낙인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무엇보다 특정 집단이나 이슈와 함께 묶여 제시된다는 것은 자칫 낙인 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하찮게 여기는 현상, 즉 낙인의 사소화(trivialization)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Parrott & Eckhart, 2021). 실제 이러한 뉴스 기사가 독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지만, 낙인에 관한 기사의 대부분이 낙인을 단순 언급하며 낙인 문제를 사소하고 하찮은 것(trivialization)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위험은 체계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다.

본 연구는 특정 대상과 이슈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아닌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낙인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낙인 메커니즘에 따르면(Chaudoir, Earnshaw, & Andel, 2013; Link & Phelan, 2001), 다수 집단은 자신들의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의 자격을 박탈한다. 낙인찍힌 이는 스스로에게 수치와 무력감을 느끼며 사회로부터 멀어진다. 더욱이 정상으로부터 비정상을 구별해내는 낙인은 소수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주류 사회가 정한 기준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완벽성은 높은 긴장감과 피로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한국사회의 늘어만 가는 우울증과 자살 문제도 결국 나와 다른 사람을 유약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주류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견제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이하나·안순태, 2015).

비록 내용분석의 결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낙인화 문제를 해석하고 그 파급효과를 측정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에 두드러진 다양한 낙인을 보여주고 있다.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가 아니므로 논의를 제안하는 데 조심스럽지만, 이미 많은 낙인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낙인화를 통한 대립이 격화될수록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고통은 심해지고, 연대를 통한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이 어려워진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회통합은 집단 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관계 중심의 문화적 특성은 신종 감염병이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극심했던 이번 코로나19 시기에 강하게 발현하여 우리가 아닌 그들을 향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적 태도를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낙인을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뉴스가 낙인찍힌 대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느냐에 따라 낙인찍힌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화할 수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이하나·안순태, 2015),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언론의 보도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언론은 낙인에 대한 주제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다루거나, 낙인찍힌 대상을 인용원으로 보도함으로써 낙인화된 대상에 대한 접촉을 촉진할 수 있으며, 대중이 가진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의 창구가 될 수 있다(Parrott & Eckhart, 2021). 본 연구를 토대로 어떠한 방식의 보도가 낙인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낙인에 대한 언급이 고정관념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보도되었는지,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보도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낙인이 어떠한 주제에서 언급되는지, 낙인화된 대상은 누구인지, 낙인 명칭을 사용한 주체는 누구인지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언론이 낙인화 대상을 어떻게 칭하고, 묘사하는지를 질적으로 탐색했지만, 낙인의 결과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뉴스 기사가 주류 사회의 시선을 그대로 보도하는지 아니면 비판적으로 보도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했다. 비록 뉴스 기사가 낙인화 대상을 언급하더라도, 전체적인 뉴스 프레이밍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낙인을 개선해야 한다는 변화를 강조한다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Corrigan, Morris, Michaels, Rafacz, & Rüsch, 2012). 본 연구는 주요 언론에서 낙인 단어가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는지를 통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전반적인 낙인과 낙인 단어의 사용에 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탐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낙인 단어가 사용된 뉴스의 프레이밍과 낙인화 수준 등을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낙인화된 대상과 레이블링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므로, 낙인의 요소인 고정관념, 편견, 차별 등의 세부적 분류 및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낙인의 요소에 따른 세부적 분류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언론보도를 통해 낙인이 확산되는 기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신문기사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또 다른 중요 언론인 방송기사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낙인 단어를 중심으로 낙인의 사소화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이번 첫 탐색적 연구에서는 방송매체를 제외했지만, 한국의 주요 언론이 낙인 이슈와 관련해 취하는 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방송뉴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송뉴스는 더욱이 시각적 자료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미지와 함께 낙인화 대상이 언급되는지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불안정한 시기에 낙인 전체를 살펴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슈 자체가 강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못했던 낙인 이슈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낙인 문제 전반을 파악하고자 시작한 연구이지만, 오히려 해당 시기의 언론 기사들은 코로나에 집중된 관심으로 인해 다른 낙인 문제가 놓쳐졌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보완해 우리 사회의 낙인 문제를 논의하는 연구들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주류언론에 의한 낙인찍기, 낙인찍힘을 포괄적으로 점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이분화된 선긋기, 범주화 현상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낙인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낙인에 초점을 둔 기사보다 낙인을 부수적인 것으로 단순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언론 보도에 대한 실무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낙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고 낙인 해소를 위한 언론의 역할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References

Abdelhafiz, A. S., & Alorabi, M. (2020). Social stigma: the hidden threat of COVID-19. *Frontiers in Public Health*, *8*, 429.

Anderson, J., & Bresnahan, M. (2013). Communicating stigma about body size. *Health Communication*, *28*(6), 603-615.

An, S. (2020). 'Stigma', a gaze that makes us cringe [On-Line].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Retrieved 10/4/23 from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8451203&memberNo=42494515 [안순태 (2020).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시선, '낙인'.]

Baek, H. J., Jo, H. J., & Kim, J. H. (2017). Content analysis of news coverage on stigma and attribution regarding mental illnes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61*(4), 7-43. [백혜진·조혜진·김정현 (2017). 정신질환의 낙인과 귀인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한국언론학보>, 61권 4호, 7-43.]

Barron, L. G., & Hebl, M. (2010). Reducing "acceptable" stigmatization through legislation.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4*(1), 1-30.

Becker, G., & Arnold, R. (1986). Stigma as a social and cultural construct. In S. C. Ainlay, G. Becker, & L. M. Coleman (Eds.), *The dilemma of difference: A multidisciplinary view of stigma* (pp. 39-57). New York, NY: Plenum Press.

Bhanot, D., Singh, T., Verma, S. K., & Sharad, S. (2021). Stigma and discrimination during COVID-19 pandemic. *Frontiers in Public Health*, *8*, 577018.

Botha, S., & Harvey, C. (2022). Disabling discourses: Contemporary cinematic representations of acquired physical disability. *Disability & Society*, 1-23.

Chaudoir, S. R., Earnshaw, V. A., & Andel, S. (2013). "Discredited" versus "discreditable": Understanding how shared and unique stigma mechanisms affect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disparitie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5*(1), 75-87.

Cheong, Y. G., Song, H.-J., Yoon, T.-I., & Shim, H. (2011). The effect of media stereotyping of immigrants on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ism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2), 405-427. [정연구·송현주·윤태일·심훈 (2011). 뉴스 미디어의 결혼이주여성 보도가 수용자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405-427.]

Cho, G.-H. (1996). Culture and person percep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5*(1), 104-139.

[조긍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임상심리학회>, 15권 1호, 104-139.]

Choi, J. H., & Lee, S. J. (2022). The representation of disabled people on YouTube: Differences by the type of producer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6*(6), 203-240. [최재현·이숙정 (2022). 유튜브 영상 속 장애인 재현에 대한 내용분석: 생산자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6권 6호, 203-240.]

Choi, T. M. (2021). Fighting against COVID-19: What operations research can help and the sense-and-respond framework. *Annals of Operations Research*, 1-17.

Corrigan, P. W., Morris, S. B., Michaels, P. J., Rafacz, J. D., & Rüsch, N. (2012). Challenging the public stigma of mental illness: A meta-analysis of outcome studies. *Psychiatric Services, 63*(10), 963-973.

Corrigan, P. W., Powell, K. J., & Michaels, P. J. (2013). The effects of news stories on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1*(3), 179-182.

Earnshaw, V. A., Smith, L. R., Chaudoir, S. R., Amico, K. R., & Copenhaver, M. M. (2013). HIV stigma mechanisms and well-being among PLWH: A test of the HIV stigma framework. *AIDS and Behavior, 17*, 1785-1795.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 in narrative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38.

Flores, A., Cole, J. C., Dickert, S., Eom, K., Jiga-Boy, G. M., Kogut, T., ... & Van Boven, L. (2022). Politicians polarize and experts depolarize public support for COVID-19 management policies across countri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9*(3), e2117543119.

Friedman, S. R., Williams, L. D., Guarino, H., Mateu Gelabert, P., Krawczyk, N., Hamilton, L., ... & Earnshaw, V. A. (2022). The stigma system: How sociopolitical domination, scapegoating, and stigma shape public heal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0*(1), 385-408.

Gerbner, G. (1973). Cultural indicators: The third voice. In G. Gerbner, L. P. Gross, & W. H. Melody (Eds.),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ocial policy* (pp. 555-573). New York: Wiley.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NY: Simon & Schuster.

Hall, S. (1982). The rediscovery of 'ideology': Return of the repressed in media studies. In M. Gurevitch, T. Bennett & J. Curran (Eds.),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pp. 57-90). New York: Methuen.

Harper, S. (2005). Media, madness and misrepresentation: Critical reflections on anti-stigma discourse.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0*(4), 460-483.

Haslam, S. A., Haslam, C., Jetten, J., Cruwys, T., & Dingle, G. A. (2020). Social identity. In L. Cohen (Ed.),

The Wiley encyclopedia of health psychology (pp. 679-688). John Wiley & Sons.

Hatzenbuehler, M. L., Phelan, J. C., & Link, B. G. (2013). Stigma as a fundamental cause of population health inequalit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3*(5), 813-821.

Hirschfield, P. J., & Piquero, A. R. (2010). Normalization and legitimation: Modeling stigmatizing attitudes toward ex-offenders. *Criminology*, *48*(1), 27-55.

Hong, J. (2017). The study of the media's method of reenacting gender based violenc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83*, 186-218. [홍지아 (2017). 젠더화된 폭력에 대한 뉴스 보도: 4 개 언론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의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3권, 186-218.]

Hwang, A. R., & Na, E. Y. (2018). Content analysis of news coverage with regard to mental health.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4), 290-322. 〔황애리·나은영 (2018). 한국 언론의 정신건강 보도에 관한 내용 분석 연구: 뉴스 프레임과 기사 논조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권 4호, 290-322.〕

Iyengar, S. (1994).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nes, E. E. (1984). *Social stigma: The psychology of marked relationships*. WH Freeman.

Kang, B. C. (2011).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tigma on the life satisfaction of sexual minorit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2*(2), 381-417. [강병철 (2011).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권 2호, 381-417.]

Kim, H. S., Kim, D.-Y., Shin, H., & Yi, J. (2011). Psychological adaptation of Koreans in the multicultural era: The effects of social identity, acculturation-related ideologies, and intergroup contact on prejudice against migra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2), 51-89.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권 2호, 51-89.]

Kim, M. A., & Sung, J. (2022). COVID-19 survivors' experiences of stigma and coping in the workplac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2*(3), 7-29. [김민아·성지민 (2022). 코로나 19 생존자의 직장 내 낙인 및 대처 경험. <보건사회연구, 42권 3호, 7-29.]

Kim, M. Y., Jeon, S. S., & Byun, E. K. (2017). Overcoming internalized stigma in persons with psychiatric di sabilit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6*(3), 238-247. [김미영·

전성숙 변은경 (2017). 정신장애인의 내재화된 낙인 극복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26권 3호, 238-247.]

Kim, S. Y., Cheon, J. E., Gillespie-Lynch, K., & Kim, Y. H. (2022). Is autism stigma higher in South Korea than the United States? Examining cultural tightness, intergroup bias, and concerns about heredity as contributors to heightened autism stigma. *Autism, 26*(2), 460-472.

Lee, H., & An, S. (2013). The impact of health news on the social stigma of suicide attempt or ideation : Focusing on onset controllability and group categoriz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7*(4), 27-47. [이하나 안순태 (2013). 자살예방뉴스의 낙인 (stigma) 요소에 대한 분석: 자살발생 원인에 대한 통제성과 집단 범주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 4호, 27-47.]

Lee, H., & An, S. (2015). Korean society's perception toward suicide: 'Us' and 'them' represented in a TV documentar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4), 309-343. [이하나 안순태 (2015). 자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다큐멘터리에 재현된 '우리'와 '그들'. <보건사회연구>, 35권 4호, 309-343.]

Lee, H., & An, S. (2016). Social stigma toward suicide: Effects of group categorization and attributions in Korean health news. *Health Communication, 31*(4), 468-477.

Lee, H., & An, S. (2020). Exploring the strategic factors for suicide prevention communication among young adults: Focusing on improving awareness of suicide stigm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8*(3), 29-50. [이하나 안순태 (2020). 청년 세대의 자살 예방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략 방향 탐색: 자살을 둘러싼 낙인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8권 3호, 29-50.]

Lee, J. H., & Cho, G.-H. (2014). Differences in moral foundations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8*(1), 1-26. [이재호·조긍호 (2014). 정치성향에 따른 도덕판단기준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권 1호, 1-26.]

Lim, S. W. (2013). Emotionale Expressivitat und Modalitat im politischen Diskurs. *Deutsche Sprach- und Literaturwissenschaft, 21*(3), 299-320. [임성우 (2013). 정치담화에서의 감정 표출과 양태성. <독일어문학>, 21권 3호, 299-320.]

Link, B. G. & Phelan J. C. (1999). Labeling and stigma. In C. S. Aneshensel & J. C. Phelan (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New York: Plenum.

Link, B. G., &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1), 363-385.

Link, B. G., & Phelan, J. (2014). Stigma power. *Social Science & Medicine, 103*, 24-32.

Livingston, J. D., & Boyd, J. E. (2010).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internalized stigma for people living with mental illnes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ocial Science & Medicine*, *71*(12), 2150-2161.

Maier, D., Waldherr, A., Miltner, P., Wiedemann, G., Niekler, A., Keinert, A., ... & Adam, S. (2018). Applying LDA topic modeling in communication research: Toward a valid and reliable methodology.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12*(2-3), 93-118.

Major, B., & O'brien, L. T. (2005).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393-421.

Major, L. H. (2009). Break it to me harshly: The effects of intersecting news frames in lung cancer and obesity coverage.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4*(2), 174-188.

Martin, S., Schofield, T., & Butterworth, P. (2022). News media representations of people receiving income support and the production of stigma power: An empirical analysis of reporting on two Australian welfare payments. *Critical Social Policy*, *42*(4), 648-670.

McCombs, M. (2005). A look at agenda-setting: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ism Studies*, *6*(4), 543-557.

Park, K. (2020). The stigma of local universities and the impaired social identity of local university students. *Social Science Research, 59*(2), 171-205. [박경 (2020). 지방 대학에 대한 낙인과 지방대생의 손상된 사회적 정체성. <사회과학연구>, 59권 2호, 171-205.]

Parker, R., & Aggleton, P. (2003). HIV and AIDS-related stigma and discrimination: A conceptual framework and implications for ac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57*(1), 13-24.

Parrott, S., & Eckhart, N. (2021). Stigma in the news: The representation and trivialization of stigma in US news publications. *Health Communication*, *36*(4), 440-447.

Pescosolido, B. A., Martin, J. K., Lang, A., & Olafsdottir, S. (2008). Rethinking theoretical approaches to stigma: A framework integrating normative influences on stigma (FINIS). *Social Science & Medicine*, *67*(3), 431-440.

Shin, H. J. (2013). Effect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and outgroup contact experience of the middle-aged on discriminatory prejudice. *Social Science Research, 29*(4), 113-134. [신학진 (2013). 중년의 권위주의적 성향과 외집단 접촉경험이 차별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9권 4호, 113-134.]

Smith, R. A. (2007). Language of the lost: An explication of stigma communication. *Communication Theory, 17(*4), 462-485.

Smith, R. A. (2011). Stigma, communication, and health. In T. L. Thompson, R. Parrott, & J. F. Nussbaum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health communication* (pp. 480-493). Routledge.

Smith, R. A., Zhu, X., & Quesnell, M. (2016). Stigma and health/risk communication. In G. W. Noblit (Ed.),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unwoo, H. (2018). The labeling effect and the politics of hostile exclusion in Korean society: Centered on ‘pro-north Korean leftist forces’/‘pro-Japanese dictatorship forces’. *Philosophia, 145*, 271-296. [선우현 (2018). 한국사회에서의 낙인효과와 적대적 배제 정치:‘종북좌파’/‘친일독재 세력’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271-296.]

Tajfel, H., & Turner, J. C. (2004).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Political psychology* (pp. 276-293). Psychology Press.

Tajfel, H., Turner, J. C., Austin, W. G., & Worchel, S.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Organizational Identity: A Reader, 56*(65), 9780203505984-16.

Toyoki, S., & Brown, A. D. (2014). Stigma, identity and power: Managing stigmatized identities through discourse. *Human Relations*, *67*(6), 715-737.

Trepte, S., & Loy, L. S. (2017). Social identity theory and self-categorization theory.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edia Effects*, 1-13.

Van Dijk, T. A. (2009). *Society and discourse: How social contexts influence text and talk*.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iner, B., Perry, R. P., & Magnusson, J. (1988).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reactions to stigm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5), 738-748.

Williams, R. (1985).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Yang, L. H., Kleinman, A., Link, B. G., Phelan, J. C., Lee, S., & Good, B. (2007). Culture and stigma: Adding moral experience to stigma theory. *Social Science & Medicine, 64*(7), 1524-1535.

Yang, Y., & Parrott, S. (2018). Schizophrenia in Chinese and US online news media: Exploring cultural influence on the mediated portrayal of schizophrenia. *Health Communication, 33*(5), 553-561.

Yoon, I. K. (2020, May 26). *COVID 19: Mass infection from Itaewon that spread to hate... The story of LGBTQ Kim*. BBC News Korea. Retrieved 4/10/23 from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803935 [윤인경 (2020). 코로나19: 혐오로 번진 이태원발 집단감염… 성소수자 김 씨의 이야기.]

최초 투고일 2023년 04월 13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9월 22일
논문 수정일 2023년 10월 02일